



## 甲申年 새해를 맞으며...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연말연시 우편물 소통에 애쓰고 계시는 우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지난 해는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IT 정책의 큰 골격을 정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준비한 해였습니다. 참여 정부 두 번째 해인 올 해부터는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매듭짓지 못했던 휴대 인터넷 정책방향 설정, 디지털 TV 전송방식 논란 등 주요 현안의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정보통신인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올해 정보통신부의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소득 2만불시대, 광대역 IT로 함께 열자”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 첫째, IT 신성장동력의 세부추진전략(Action Plan)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9대 품목별로 특화된 육성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분야의 경우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는 표준화를 통해 첨단 서비스 시장을 조기에 형성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를 산업지원 위주로 개편하고 대민 창구도 일원화하는 등 신성장동력 추진여건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IT 산업을 활성화하여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문제에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S/W산업과 경쟁력있는 R&D 전문 중소기업들을 위한 시장 형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첨단 IT 산업으로 제조업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대졸 청년실업자에게 전문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IT 분야에서 이들을 흡수함으로써, 실업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IT 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IT 산업이 세계 IT 산업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IT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Intel, IBM 등 그간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R&D 센터 유치에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이 연구소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여 성과를 얻도록 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를 유치하는데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그동안 쌓아 온 정보통신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정보화로 도약하는 나라(Broadband IT Korea)”로 건설하겠습니다.

다가올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PC와 TV, 냉장고, 휴대용 전자 제품 등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에 수립한 BcN(광대역통합망) 구축기본계획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BcN 구축에 핵심적인 기술개발에도 선도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광대역통합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많은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도 필요합니다.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의 시범망을 70개 기관에서 90개 이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실질적인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IPv6의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1대 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 등을 도입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ی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제일의 IT 인프라를 토대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정보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e-Life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보활용기회(Digital Opportunity)를 제공하여 균형있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전 국민이 정보인프라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정보화시대를 열겠습니다.

\* 셋째, 건강한 디지털 안전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활용되면서 해킹, 바이러스, 불건전정보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인터넷 침해사고는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계기였습니다.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e-Secure Korea, e-Privacy Korea, e-Clean Korea를 제안합니다.

민·관의 인터넷 대응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국가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Secure Korea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침해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개인정보에 대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e-Privacy Korea를 실현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정보보호기구도 강화하여 e-Privacy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팸 없는 사회를 만들어 e-Clean Korea를 구현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스팸방지 및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여 사이버 청정구역을 구현하겠습니다.

\* 넷째, 통신·방송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통신시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최대로 발휘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역무화하는 등 지난 해에 수립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의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무설비제공제도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통신·방송의 융합추세에 맞게 법·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걸음마 단계인 WCDMA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의 허가시기 등 정책방향을 상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1,500 만대의 차량을 타겟으로 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통신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융합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분류제도도 고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범세계적 변화를 우리 전파방송산업의 발전 기회로 만드는 일도 시급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속 수준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의 지속적인 고속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첨단 디지털 방송망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조속히 논란을 종식하여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해에 서비스를 개시하려했던 DMB의 경우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방송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방송이 금년 중에 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간 우정사업은 공공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국민들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 실명제, 배달결과 휴대전화 통지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여 우편배송의 정확성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신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의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우편물량의 감소 및 민간 금융기관과 심화되는 경쟁 등 변화하는 경영여건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6 시그마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우편작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을 지능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기반도 건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이어 금년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발판을 다지고, 주요 현안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이러한 사업들은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단합된 힘에 의해 조금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아가 IT가 어려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진취적이고도 창조적인 노력으로 변화와 발전의 주체가 됩시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마련하는 한 해를 만듭시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원만하고 긴밀한 노사관계의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서로 신뢰하고 배려해 주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갑신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